



선착 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프로야구 두산과 KIA의 경기 5회초 무사 상황에서 KIA 안치홍이 안타를 치고 2루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랑이, 지긋지긋 ‘곰 징크스’ 탈출



KIA, 두산전 10연패 끊고 주말 2승1패

6일 총알투 양현중, 유희관 느린공에 완쾌

KIA 타이거즈가 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4 패를 기록했다.

‘총알투’ KIA 양현중과 ‘느림의 미학’ 두산 유희관, 양팀을 대표하는 두 좌완의 스피드 대결에서 ‘느림’이 승리했다. 두산전 싸움을 노렸던 KIA는 에이스 양현중의 배터리가 일찍 떨어지면서 ‘두산 징크스’ 탈출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양현중은 149km의 직구를 뿌리며 여전히 ‘빠름’을 과시했지만 제구가 좋지 못했다. 두개의 탈삼진을 포함해 삼자범퇴를 기록한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두타자를 출루시키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1회 첫 타자 민병현과의 승부에서 불넷을 내줬고, 3회에는 김재호에게 내야 안타를 맞았다. 4회 다시 고영민을 불넷으로 출루시킨 양현중은 패스트볼이 나온 1사 2루에서 홍성흔에게 1

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정수빈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5회에는 민병현의 연속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3루의 위기에 몰렸다. 오재원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고영민의 땅볼 때 3루주자 정수빈이 홈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점수를 내줬다.

지난 1일 NC와의 홈개막전에서 122개의 공을 던지며 8회를 무실점을 틀어막았던 양현중은 두 번째 등판에서는 5회까지 99개의 공을 던지며 일찍 마운드를 내려왔다. 양현중의 기록은 6회 안타 3사사구 4탈삼진 2실점(1자책점)이었다.

KIA 타선은 1회 무사 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유희관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톱타자 이대형이 2루타로 출루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더 이상 진루를 하지 못했다. 이후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KIA는 5회 안치홍의 선두타

자 안타로 다시 무사 2루의 기회를 잡았다. 박기남의 희생번트로 1사 3루. 그러나 김상훈과 김선빈이 3루수 땅볼로 돌아서면서 이닝이 종료됐다.

7회 세 번째 무사 2루의 기회가 왔다. 나지안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2루로 향한 뒤 필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왔다. 모처럼 추격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1사 1루에서 박기남의 병살타가 나왔다.

두산 유희관은 82개의 공으로 21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며 ‘극과 극’의 스피드 대결에서 승자가 됐다.

3연승은 실패했지만 두산전 징크스에서는 벗어났다.

KIA는 홈튼을 앞세운 지난 4일 6-0 영봉승으로 두산전 10연패에 탈출한 뒤, 5일 경기에서는 3루타·2루타 포함 3개의 안타를 때려낸 안치홍의 맹타로 9-6 승을 챙겼다.

지난 시즌 두산전 타율은 0.057에 불과했던 이범호도 두 경기에서 7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하며 두산 악몽에서 벗어났다. 5일 경기에서는 역대 33번째로 700타점을 채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멀티히트 추가요”

추신수 탬파베이전 2안타 1타점

통산 500 득점... 팀은 4-5 역전패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톱타자 추신수(32)가 올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득점·타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탬파베이와 1차전에서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추신수는 하루 만에 다시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올 시즌 5경기째를 치른 추신수가 멀티 히트를 기록한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8로 올랐다.

이날 탬파베이는 2012년 20승을 거뒀던 좌완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선발로 내세워 왼손 투수에 약한 추신수를 압박했다.

그러나 추신수는 1회 첫 타석부터 풀카운트 신경전을 벌인 끝에 깨끗한 우전 안타를 때려 프라이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엘비스 안드루스의 안타와 프린스 필더의 플라이볼로 3루를 밟은 추신수는 알렉스 리오스의 안타로 홈을 찍어 선취 득점을 올렸다. 이번 득점으로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에서 데뷔한 이래 10시즌 만에 통산 500득점 고지에 올랐다.

추신수는 2회에도 프라이스의 시속 150km 한복판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안타로 연결했다. 이번에는 후속타 불발로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추신수는 3-1로 앞선 4회에는 1사 1, 3루에서 다시 한 번 프라이스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끝에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타점까지 추가했다. 6회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9회에는 팀의 마지막 타자로 나섰으나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4-5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 ‘멘붕’ 다저스 류현진 이어 선발 무너지며 홈 2연패

류현진에 이어 다시 한 번 선발 투수가 무너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홈에서 2연패를 당했다.

다저스는 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2-7로 졌다.

다저스는 전날 열린 홈 개막전에서 선발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다 실점(8실점·6자책)으로 부진해 샌프란시스코에게 졌다.

이날도 선발 투수 폴 마홈이 홈런 두 방을 얻어맞는 등 4.1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 5실점(5자책)으로 부진, 다저스는 연이날 고개를 떨어

뜨렸다.

5일 홈 개막전에서는 류현진이 1회초 미국 프로야구 진출 후 처음으로 ‘타자 일순’을 허용하며 6실점 한 뒤 2회에도 추가 2실점하며 무너졌다. 미국 진출 후 최소 이닝에 최다 실점(중전 5실점·2013년 4월 2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7월 1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을 기록한 경기였다. 한 이닝 최다 실점도 중전 3점(2013년 7월 11일, 5회)에서 6점으로 늘었다.

한국 프로야구 시절 류현진의 한 경기 최다 실점은 8점(2012년 7월 18일 삼성전·2이닝 8실점)이었다.

/연합뉴스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